Vol.11/No.4
2017 WINTER

무예연구 : 한국무예학회
JOURNAL OF MARTIAL ARTS : KOREA SOCIETY OF MARTIAL ARTS

일제강점기 황을수의 권투활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oxing Activities of Hwang Eul-soo during the forced Japanese Colonial Period

임석원, 조문기 Yim, Suk-Won · Cho, Moon-Gi

한국무예학회

한국무예학회 : 무예연구 2017, 제11권, 제4호(통권 제23호), 1 - 14
Korea Society for Martial Arts : Journal of Martial Arts
2017, Vol.11 . No. 4, 1 - 14

일제강점기 황을수의 권투활동에 관한 연구

임석원(가톨릭관동대학교) · 조문기*(일가재단)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황을수의 권투활동에 관하여 분석함으로서 그의 활동 이력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권투환경에 어떠했는지 유추해보기 위하여 진행한 연구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신문, 잡지, 논문, 단행본들을 검토하는 문헌고찰의 방법을 택하였으며, 황을수의 이력에 대한 검토는 시간 순으로 기술하되 중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분 짓는다. 이상과 같은 천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황을수는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일본 유학시절 권투를 시작하여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에 그 이름을 크게 알리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후 월북하였기에 그 이후에 사정에 대해선 금후의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 권투, 황을수, 일제강점기, 월북

* ultrajo74@naver.com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대상

복싱은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유종만, 이충섭, 김진표, 2011: 19). 고대 그리스[1] 시대부터 주요 운동경기 중 하나로 자리 매김 하였던 복싱은 이후 18세기 영국[2]에서 근대 복싱으로서의 초석이 다져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에 복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인 “1912년 10월 7일 박승필이 유각권 구락부를 조직하여 회원들 간에 실시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복싱의 시초(나영일・손수범, 1998 : 22)” 이다. 그러나 “朝鮮의 拳鬪는 靑年會體育部에잇는 拳鬪班이가장오랜歷史를가젓스며 또奬勵를한다면 오직 이 곳 뿐이엇는데(동아일보, 1930. 01. 08 : 7)” 라는 일제강점기 당 시대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사료도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일제강점기 당시 권투에 있어 조선인으로 이름을 크게 알린 황을수이며, 그를 선정한 이유로서 그에 대한 사계의 평가를 다음에 보인다.

> 朝鮮이 나흔 世界的 大拳鬪家, 黃乙秀氏 황을수(黃乙秀) 씨라면 대단히 붓그러운 일이나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를 아는 이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일본(日本)이나 비율빈(比律賓)은 물론이요 기타 세계에서도(특히 運動界) 그를 모를 사람이 업슬만치 무서운 힘을 가진 권투게(拳鬪界)에 유명한 선수입니다(편집부, 1931 : 14).

[1] 초기 고대 올림픽에서…중략…종목은 경주, 도약, 투창, 투원반, 레스링, 5종경기, 권투, 판크라티온, 전차경주 등이었다(하남길 외 공저, 2008 : 30).

[2] 1719년 검술, 봉술, 권투 세 분야에서 최고봉의 위치에 있던 피그(J. Figg)는 런던…중략…권투 교습소를 설립하고 권투를 가르치며, 권투 발전의 초석을 닦았다(하남길 외 공저, 2008 : 164).

1931년 6월 22일 토오쿄 아사이신문사(동경조일신문사)주최 동경 아마튜어권투 선수권대회의 결정전에서 황을수가 필리핀의 안토니아 복고이선수를 물리쳐 전일본과 극동의 왕좌로 군림하였다(나현성, 1958 : 163). 그 후 그는 1932년 제10회 LA올핌픽에 우리나라 복싱선수로는 최초로 일본을 대표하여 출전하였다(최종삼, 김진표, 손수범, 1999 : 61).

1935년 6월 21일 한국인 최초로 동경유학생으로 1932년 제10회 LA올림픽에 참가한 황을수가 동양권투호관을 개관하였다. 회장 여운형, 부회장 옥선진이였으며 이 당시 YMCA권투부, 조선권투구락부와 경쟁 하며 아마권투선수권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일본에 원정 경기를 하는 등 아마추어 권투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다(김진표, 김해수, 2003 : 146).

위와 같이 다양하게 언급된 업적을 황을수에 대한 연구 필요성의 근거로 한다. 황을수에 대하여 일부 언급한 선행연구를 보면 황을수는 연구 주제로 선정하여 전개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황을수의 일부 약력들을 논의한 최종삼, 김진표, 손수범(1999)의 「민족시련기에서의 한국복싱의 사적 고찰」, 김진표, 김해수(2003)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아마추어 권투경기에 관한 연구」등의 문헌들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목적, 의의 및 연구 방법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황을수의 권투 선수 활동 이다. 이와 같은 주제를 논구하여 황을수의 권투선수 활동의 대략적 이력을 정립하여 문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 권투의 흐름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연구의 의의로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문, 잡지, 논문, 단행본 등을 사용한 문헌 고찰의 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전개한다.

Ⅱ. 본론

> 강원도 철원(鐵原) 출생으로 당지의 공립보통학교(公普校)를 맛치고 간이농업학교(簡易農業校)를 단이다가 서울로 와서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약간 단이엿스며 또한 중앙청년학관(基督青年會) 영어과를 맛치고 좀더 어학을 공부하러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진영어학교(日進英語學校)를 단이다가 지금은 명치대학정경과(明大政經)에 재적하고 잇는 금년 24살된 젊은 용사입니다(편집부, 1931 : 14).

상기 자료는 일제강점기 당시 잡지인 별건곤에서 황을수를 취재한 자료로 그의 기초 약력이 잘 들어나 있다. 황을수는 1908년 철원 출생으로 서울 휘문고보에서 수학하다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YMCA에서 영어를 배우다 도일하여 일진영어학교를 거쳐 명치대학에 진학하였다. 그는 명치대학 유학시절 권투에 입문하게 되는데 그가 권투에 입문하기 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

> 그가 권투게에 발을 드러놋케 된 동긔와 또 외국인과 싸와 익이든 이야기만 몃 가지 말한다면 아래와 갓습니다. 이 분은 어렷슬 때부터 남 유달니 몸이 체소한 데다 더욱이 허약하야 자긔는 물론이요 그의 보모님까지 매양 걱정으로 지내엿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휘문학교에 단일 때에 아츰마다 등산운동을 한 1년 동안 하는 동안에 몸이 비교적 튼튼해짐을 보고 거기에서 자신이 생기여 일본으로 건너가서도 쉬지 안코 근육운동을 게속한 결과 비로소 보통사람 이상으로 튼튼해젓답니다(편집부, 1931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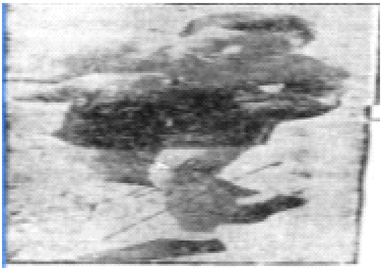

그림 1. 황을수의 존영(尊影)
출처 : 동아일보, 1931. 8. 22.

위는 황을수의 젊은 시절 사진으로 1931년 잡지 별건곤의 기자는 황을수의 신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긔자도 처음으로 이분을 대하엿슬 때 그 웅장한 체구에 예긔 이상으로 놀래엿습니다. 떡버러진 가슴, 툭 붉어진 근육, 쇠뎅이라도 따려 부실듯한 주먹, 건강과 용긔를 상징하는 얼골 등 모-든 것이 력사(力士)로서의 소질을 충분히 보여주엇습니다(편집부, 1931 : 14).

황을수는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일본 명치대 재학 시절 일본권투의 창시자로 인식되며 조선 무도인[3]들에게 영향을 상당부분 주었던 '와타나베 시지로[4]' 에게 권투를 사사받았다[5]. 이는 황을수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권투

3) 추가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경석이 유도뿐만 아니라 검도와 권투를 수련했다는 사실인데, 여기서 이경석에게 권투를 사사한 와타나베시지로는 일본 복싱의 창시자로 일제하 한반도에서 권투 명인으로 회자되던 서정권의 스승으로 알려진 인물이다(임석원, 조문기, 2009 : 128).

4) 타이쇼오(大正) 10년 미국에서 복싱 선수로서 활약하던 와타나베가 귀국하고 다음에 도쿄 메구로(目黑)에 복싱 구락부를 창설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싱이 소개되었다. 와타나베(1989.8. 9 도지기현 출생)는 중학시대에 역사 선생을 배척하는 스트라이크의 주모자로 몰려서 퇴학을 당하자 자기가 좋아하는 외국어 공부를 목적으로 1896년 11월 3일 영국 배편으로 도미했다. 당시 그는 16세 때였다. 캐나다의 빅토리아항을 경유 샌프란시코에 당도했는데 그 당시

양성의 양대 축이었던 조선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YMCA와 일본 유학생 계열 중 후자에 속함을 알게 해준다. 다음으로 황을수의 주요 권투생활은 1931년 별건곤 5월호 15쪽에서 황을수를 인터뷰하여 기사화한 내용을 토대로 발췌하여 다음에 적시한다.

1928년 2월 28일-일본 拳鬪俱樂部에 입회.

1928년 5월 10일-水津濃俱樂部 선수 山田을 初回戰 때 1분 3초만에 데크니칼 넉아웃으로 勝.

1928년 6월 28일-모 회사원으로 일본의 선수권을 가지고 잇는 龜岡을 포인토(成績)로 快勝.

1928년 8월 10일-目黑拳鬪俱樂部 사범 久保田을 역시 포인토로 快勝.

1928년 12월 18일-아마추어 선수권대회에서 역시 久保田을 데크니칼로 大勝하고 결승전 때 그만 역시 目黑선수 綱野에게 파올(뱃곱 밋흘 잘못 때려서)로 大敗.

1929년 5월 1일-역시 綱野를 포인토로 快勝.

1929년 10월 28일-法政大學 찜-의 主將 小玉을 넉아웃으로 大勝.

1929년 10월 30일-明治藥專 찜-의 主將 佐藤을 初回戰때 1분 10초만에 넉아웃으로 大勝.

는 일본인 배척운동이 심했던 까닭에 그곳 부랑자들에게 몰매를 맞아 실신되었다. 출생이후 처음으로 맛본 복싱의 스트레이트 펀치였다. 그는 복수심이 일어나 복싱 기술을 습득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흑인선수 루프 터너의 도장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그곳에서 배운지 6개월 만에 스튜어터 선수와 시합해서 3회전에 행운타(KO)로 승리를 거두는 좋은 전과를 세우고 그 후 16회의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1921년 1월 그는 일본을 떠난지 15년 만에 귀국, 그해 12월 25일 일본 최초의 복싱도장을 개관하였다. 일본의 유명한 복싱 지도자들은 와타나베의 문하생이었으며, 그는 일본 복싱계의 조부라고 불리기도 했다. 우리나라 복싱계의 유명한 선배들도 대부분 그의 도장을 거쳐 온 사람이 많았다(김정행, 1997 : 470).

5) 1908년 강원도 철원에서 출생한 ‘위대한 화이터’ 황을수는 일본 명치대 유학시절 일본 권투 구락부의 와타나베 유지로씨-일본 권투의 창시자, 후에 (32년) 서정권선수의 매니저로 도미한 사람-에게서 처음 권투를 사사받는다. 황을수의 선수생활을 화려했다. 아니 화려하단 말을 넘어 찬란했다(노병엽, 이익순, 1997 : 728).

1929년 11월 1일-神宮競技때 明大 찜-의 위원으로 잇는 小林을 데크니칼로 大勝(그리하야 비로소 선수권 획득).

1929년 12월 24일-아마추어 선수권대회 때 상대가 업스매 베-루타에 도전-深澤拳鬪俱樂部 선수 吉澤을 初回戰 때 데크니탈 넉아웃으로 大勝(선수권 획득).

1930년 1월 19일-전 일본학생 아마추어 대항전에 상대가 업기 때문에 『라이트헤비』의 多賀에게 도전-일본 初有의 동양선수권 保持者 多賀와 맛 빅엿스나 성적으로 勝.

1930년 3월 26일-專修대학 찜-의 主將 前島를 넉아웃으로 大勝.

1930년 5월 30일-目黑 선수 久保田을 포인토로 快勝.

1930년 5월 31일-比律賓 선수 『프로렌치』를 포인토로 勝.

1930년 5월 31일-明大 찜-의 위원 小林을 初回戰 때 2분 46초만에 넉아웃으로 勝(극동선수권 획득).

1930년 6월 11일-麻浦獸醫學校 선수 高野를 初回戰 때 1분 3초만에 넉아웃으로 快勝.

1930년 6월 11일-早大 선수 川口를 初回때 15초만에 넉아웃으로 大勝(關東학생 선수권 획득).

1930년 6월 18일-關東大學(전 關西 대표선수) 福村을 初回戰 때 54초만에 넉아웃으로 大勝.

1930년 10월 3일-小久保(소속 不明)를 初回戰 때 넉아웃으로 大勝.

1930년 10월 26일-專修대학 主將 柴田을 2回戰 때 넉아웃으로 大勝.

1930년 11월 6일-法政大學 선수 松村을 初回戰 때 넉아웃으로 大勝.

1930년 11월 25일-麻浦獸醫學校 主將 住野를 3回 때 넉아웃으로 快勝.

1931년 1월 10일-比律賓 遠征을 가서 대학선수권을 가진 『로베쓰』를 포인토로 快勝.

1931년 1월 12일-전문학교 선수권을 가진 『다왕』을 넉아웃으로 大勝.

1931년 1월 17일-대학선수권과 아울너 全 比島 선수권을 가진 『로베쓰』를 역시 포인토로 快勝

비록 일본을 대표하는 선수단이었지만, 1928년부터 1931년 까지 뛰어난 활약을 보인 황을수는 한국인 최초로 1932년 제10회 LA올림픽에 출전하였다.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된다. 1932년 제10회 LA올림픽은 한국인으로 처녀 출장하는 올림픽이었다. 비록 황을수의 가슴에는 태극 마크가

아닌 일장기가 달려 있었지만... 황을수는 일본 라이트급 대표 선수로 출전, 예선에서 독일의 칼과 대전한다. ‘위대한 화이터’라는 명성에 걸맞게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 황을수는 예리한 공격력을 선보이며 상대를 위협했다. 그러나 3라운드는 급속한 체력저하로 올림픽의 높은 문을 넘지 못하고 판정패로 물러났다. 한국인이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종목은 1932년 제 10회 LA올림픽 복싱과 마라톤(김은배, 권태하)부문이었다(노병엽, 이익순, 1997 : 729).

第10회 올림픽 참가 이후 황을수는 “1935년 한국에 돌아온다. 그는 수표동에 당시 돈 1만엔을 투자하여 동양권투회를 설립하여 YMCA권투부, 조선권투회와 함께 한국 복싱의 그야말로 초석을 다져나갔다(노병엽, 이익순, 1997 : 729).”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조선 안에 이 빽싱이 처음 드러 오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2, 3년 전의 일로 되어 잇다. 그 때엔 미국인 선교사들의 손으로부터 비로서 들어 왓스니 종로 YMCA 안에 처음으로 빽싱클럽이…중략…그 후 한동안 잠잠하드니 6, 7년 전에 黃乙秀 徐廷權[6] 등이 혜성과 가치 극동 권투 무대에 나타나게 되여 徐는 도미하여 꾸준히 연마한 결과 오늘날에는 세계 무대에서 단연 인기를 집중하고 잇는 현상이며, 黃乙秀는…중략…지난 6월 15일에 「동양 권투 회관」의 落成을 보게 되여, 불과 6, 7년 사이에 조선의 권투열은 그 절정에 달하엿스며 그 비약적 진보는 실로 놀날 만하다 할 것이다.…중략…黃乙秀씨는 其間 조선 권투계의 발달, 지도, 장려를 목표로 하고 열과 성의 합치로 사회 유지 인사들의 원조를 바더서 水標町에다 권투 도장을 신축하엿스니, 이것이 바로 긔자가 차저 가는 「동양권투회관」이다. 여러 가지로 대단 밧부시다는 黃乙秀씨를 낫에 차저 가서는 면회 못할 줄을 알어 찰인 기자는 밤에 氏를 찻기로 하엿다. 그 뿐만 안이라 특히 지금 연습생을 모집하여 매일 밤 7시부터 9시까지 맹렬히 연습을 한다 하오니 이것을 구경할 겸 15일 밤 8시가 좀 지나서 水標町同會舘 압에 다다럿다. 비록 단층의 벽돌집이나 건평수로 보아 상당히 넓어 보이며 그 샛틋하고도 견고하게 뵈이는 중국풍의 건물로서 정문 엽으로는 「동양 권투회」라는 간판이 부터잇고 한쪽에는 「연습생모

6) 지금부터 약 三0년전 로스안제레스에서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안고 세계 제六위 반탐급 선수권을 보유한 서정권 선수(동아일보, 1959. 10. 31 : 3).

집」이란 「立看板」이 서 잇섯다. 바로 그 뜰 압에는 수십 명의 권투 팬들이 모여 서서 창 틈으로 도장 안에서 연습하는 광경을 구경하는 모양이다.…중략…문을 처음 열고 들어서든 때부터 장내에는 그야말로 맹호나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날뛰는 동물원의 철창 속 갓흔 어마어마한 분위기가 가득 차 잇섯다. 도장 천정에는 뻰칭뽈이 세 개나 달여저 잇서 10여 명의 선수들은 그 용자를 날내게 놀니며 땀을 흘여가며 「훅크」, 「스트렛」 「뻰치」 등의 모든 자긔의 기술을 연습하기에 모두들 열중 되어 잇다. 나는 안내를 바더 도장을 지나서 사무실에서 黃씨를 기다리고 잇섯다. 黃씨는 지금 도장 한쪽에 잇는 「링」에서 연습생들을 상대로 땀을 흘여 가며 그 거구에 조금도 피로함을 보이지 안코 차례 차례로 연습생들과 대전하고 잇섯다. 또 한쪽에서는 신체의 각부 준비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잇섯고, 또 커다란 鏡臺 압헤는 「포-즈」를 가지는 방법을 연습하고들 잇다. 그 중에는 한 12, 3세 박게 안 되여 보이는 어린 소년도 한 사람 석겨 잇섯다(편집부, 1935 : 170-172.)

상기된 내용을 살펴보면 황을수의 동양권투회관은 주로 19시에서 21시까지 수련을 하였으며, 도장의 규모는 상당하였고 그 내부시설 또한 짜임새 있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당시 권투 수련생 중 12세~13세의 비교적 어린 학생들도 있었음을 밝히고 있어 당시 권투 수련의 열기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어서 당시 삼천리 기자가 황을수와 172쪽에서 173쪽의 지면을 할애하여 일문일답한 내용을 보면 당시 동양권투회관의 최대 정원이 약 30명 정도이고 그 정원이 모두 충원될 정도로 권투에 대한 열기가 엄청났다는 점을 증언하고 있다. 인터뷰 말미에 황을수는 권투가 가장 이상적인 전신운동이라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며 인터뷰를 맺었다. 다음에 그 자세한 내용(편집부, 1935 : 172-173.)이다.

記 「조선에 잇서서 권투에 대한 연구와 지도 방침을 말슴하여 주십시요.」

黃 「그것은 문제가 좀 큰데요. 하하... 하여간 일반 사회인들의 깁흔 이해 밋헤서 직접간접의 원조와 훌융한 지도 즉 코-취가 반듯이 필요하게 됩니다.」

記 「조선 권투계의 국제적 지위는 엇더한가요.」

黃 「참으로 급격한 발전이 잇섯지요, 한 12,3년 전에도 鄭惠源씨 갓흔 훌융한

선수도 잇기는 잇섯지만 그 후에는 한 사람도 업섯지요. 그러다가 나와 徐廷權이가 비로서 동경에서 권투계에 진출하엿지요, 그랫든 것이 徐는 그 후에 곳 도미하여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갓치 세계적 무대에서 권투 조선의 대 氣焰을 토하며 세계 올림픽 대회의 출전으로 말미아마 이미 권투조선의 세계적 존재를 인식식힌 후, 극동 대회에서의 制覇는 완연히 동양 권투계에 그 일임이 혁혁한 바 잇스니, 이는 실로 급격한 발전으로 조선 사람의 권투에 대한 소질이 풍부함을 가히 짐작할 수가 잇지요. 아마도 머지 안흔 압날에 조선의 권투계는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때도 머지 안흔 것갓해요.」

記 「이 회관은 참으로 훌융하군요.」

黃 「네. 돈이 만히 먹엇습니다. 사회 유지들의 열성으로 이만큼 되엿습니다. 권투의 도장으로서는 동양에서 제일일 줄로 압니다. 동경에도 이만한 훌융한 도장은 물론 업고, 比律賓에도 크기는 이보다도 좀 크지만 모든 설비라든지 이상적 도장은 업서요, 그러기에 저번 比島 권투 선수 일행이 경성에 왓슬 때 이 도장을 와 보고 그 감독 『이라난』씨는 놀나며 조선에 이런 훌융한< 도장이 잇느냐고 감탄하엿지요. 이만하면 그 어느 나라에도 조금도 붓그러움은 업서요.」

記 「지금 연습생을 모집하시는 모양인데 몃 명이나 됩니가.」

黃 「벌서 정원이 찻습니다, 지금 한 30명 됩니다. 이 이상 더 너흘 수는 업서요, 그래서 인제 신입생은 그만 바들가 합니다.」

記 「지원자는 대개 어떠한 층의 사람들인가요.」

黃 「처음으로 학생층을 위주로 할 작정이엿스나 사회적 사업이니만큼 어데 학생만 들일 수가 잇서요. 대개는 노동자라든가 상인이 만허요. 그런데 다른 운동도 과도기에는 다- 그러하엿지마는 이 권투도 처음에 아주 불량한 사람들의 작란으로 오해을 바덧섯지요. 이런 점을 참고하야 신입생을 뽑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그의 품행이라든가 행동을 보아서 들이게 되엿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주 곤난한 것은 지방에서 권투 열광자가 작구 상경하겟다는 편지입니다. 경성은 물론이지마는 2, 3년래 지방의 권투열이란 놀날만 하지요. 하루에도 이런 사람들에게서 편지가 數三通은 늘 와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하한 지도 몰으고 무턱대고 올나 오랄 수도 업고, 퍽 곤난한 경우가 만허요. 그래 일전에는 평양에서 3, 4일을 굶어 가며 부모를 졸나서 겨우 올너와 지금 여긔에서 배우는 선수도 한 사람 잇서요. 참으로 모두들 열성들이여요. 그 외에도 퍽 투지가 만코 전도가 유망한 몃 선수가 잇서요. 이대로만 나간다면 머지 안흔 압날에 세계적으로 조금도 손색이 업겟서요.」

記 「조선의 권투계가 그러케 갑작이 발전되는 데는 어덴지 조선 사람에게 무슨 유리 한 장점이 잇슴니까.」

黃 「네 조선 사람의 성질은 남으게 잘못한 줄을 알면서도 결코 잘못햇다고 하지 안는 성질을 가졋지요, 이것은 일편 낫분 근성이나 또 일편 조흔 것도 되지요, 이런 성질로 해서 권투를 하는 사람은 상대자에게 작구 어더 마즈면 더욱 용기를 내여 달아 붓는 성질임니다. 외국 사람들은 멧 개 어더 마즈면 그냥 기운이 죽어서 물너나지요. 이런 점으로 조선 사람에게 이 권투는 가장 적당한 스포-쓰이지요, 그러고 이 운동도 전 신체의 각 부분 운동이 됨으로 가장 이상적 운동의 하나 임니다.」

전술된 내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일제강점기 조선을 넘어 아시아 권투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황을수는 한국전쟁 이후 월북[7]을 하게 되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그 활약을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이후의 행적은 1963년 동아일보 보도에서 일부 들어나게 된다. “本社特派員 北傀團長과 問答…중략…과거 로스앤젤리스 올림픽에 출전하였던 권투선수 황을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황은 공훈체육인으로 북한 올림픽 위원이며 권투를 중심으로한 체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편집부, 1963. 12. 28 : 8).”

Ⅲ. 결론

오늘날 사회에서 스포츠는 단순히 운동경기로서 승부를 내는 것을 넘어서 대단히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절에 자유민주진영과 공산독재진영이 체제의 우월성을 견주려고 스포츠 경기의 장에서 서로 충돌하였던 점이 이를 방증 한다 할 것이다. 냉전시기 이전이지만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전체주의 세력인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에 의해 스포츠의 이러한 상

[7] 황을수(黃乙秀)는 “강원도 철원사람으로 일제 강점기의 권투 선수이다. 1932년 하계 올림픽 복싱 남자 라이트급에 출전 하였다. 광복 후 남쪽에 정착하였다가 한국 전쟁 이후 월북 하였다(위키백과, 2016).”

징성의 효과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적도 있다.

물론 자유민주진영이 승리한 오늘날 스포츠에서 체제의 우수성을 견주는 경향은 현재 많이 쇠락하였다. 대신 냉전시절 이전에 스포츠 현장에서 빈번히 격화되었던 민족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황을수가 활동하던 일제강점기 당시의 세계도 그런 경향이 강했다. 전술된 나치의 베를린 올림픽이 아리안족의 인종적 우월성을 선전장이 된 것처럼 말이다.

황을수는 활동하던 시기에 조선민족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였기 때문에 조선민족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 수가 없었다. 때문에 조선 민족의 자존감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으나 스포츠 분야에서 발군의 행보를 보인 몇몇 스포츠 엘리트들이 위안이 되어주었으며, 본고에서 천착한 황을수도 그 중 하나이다. 그는 조선인 최초로 비록 태극기를 패용하지는 못 하였지만 올림픽 출전하였고, 민족적 차별이 심하던 시기에 일본인들에 위에서 서서 “比島에서 열니엇든 극동대회에는 전 일본 권투감독으로 다녀온(편집부, 1935 : 170)” 이력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선권투의 내일을 위하여 경성 종로구 수표동에 최신식 시설의 동양권투회관을 건립하였으니 황을수의 권투가로서의 업적은 선수와 지도자를 아울러 훌륭하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해방이후 월북하였던 점은 그가 보인 큰 업적을 바래는 아쉬운 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김정행(1997). **무도론**. 서울 : 대한미디어.

김진표, 김해수(2003).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아마추어 권투경기에 관한 연구. **무도연구소지** 14(1), 137-149.

노병엽, 이익순(1997). **韓國복싱 八十年人物史**. 서울 : 월드타임즈.

나현성(1958). **한국운동경기사**. 서울 : 문천사

나영일, 손수범(1998). 경제성장에 따른 한국복싱의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3**, 21-31.

동아일보. 1930년 01월 08일.
동아일보. 1931년 08월 22일.
동아일보. 1959년 10월 31일.
동아일보. 1963년 12월 28일.
임석원, 조문기(2009). 이경석의 생애와 유도사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7**, 125-136.
유종만, 이충섭, 김진표(2011). **현대복싱.** 서울: 보성.
편집부(1931). **별건곤 5월호 40**. 서울: 개벽사
편집부(1935). 三千里 **8월호 7권** 7호. 서울: 삼천리사
하남길 외 공저(2008).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 진주: 경상대학교 출판부.
황을수(2016). https://ko.wikipedia.org
최종삼, 김진표, 손수범(1999). 민족 시련기에서의 한국복싱의 사적 고찰. **무도연구소지 10**(1), 57-66.

ABSTRACT

A Study on Boxing Activities of Hwang Eul-soo during the forced Japanese Colonial Period

Yim, Suk-Won(Catholic Kwandong Univ.) · Cho, Moon-Gi(Ilga Found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oxing activities of Hwang Eul-soo during the forced Japanese Colonial Period in a way to systemize his activity records to presume how it was like the boxing environment of Joseon during the forced Japanese Colonial Period based on the foregoing. For the method of study to accomplish such a goal, the method of literature review on newspapers, magazines, theses, and monographs and it is classified around important events while the record of Hwang Eul-soo is described in sequential order of time. Through the foregoing undertaking, following result has been obtained. Hwang Eul-soo was born in Cheolwon, Gangwon-do, and began his career in boxing while he was studying abroad in Japan to have a great success in Asia beyond the territory of Northeast Asia. However, after the Korean War, he went to North Korea that it is still largely unknown for situation thereafter which is to be the task to undertake in the future.

keyword : Boxing, Hwang Eul-soo, Japanese Colonial Era, defect from South Korea

논문투고일 : 2017.09.30.
심 사 일 : 2017.10.14.
심사완료일 : 2017.10.29.

한국무예학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432호

Tel. **031-201-3763** Fax. **031-201-3743** E-mail. **yudong78@naver.com**

#432 College of Physical Education,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eong-dae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17104, Korea
Tel. **+82-31-201-3763** Tax. **+82-31-201-3743** E-mail. **yudong78@naver.com**

www.kosoma.org